

영암군, 고위(간부)공직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

조직 내부 혁신·청렴 문화 공감대 확산 도모 취지로 진행 “군민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영암군은 지난 22일 최고 수준의 청렴영양 실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에 따라 군 간부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군수 및 고위(간부)공직자들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혁신과 청렴 문화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202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는 청렴해피콜 만족도 조사, 청백e시스템을 통한 내·외부 상시 모니터링, 부패 신고시스템 활성화, 취약 시기 자체 감찰 강화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활동은 물론 청렴도 취약 분야인 조직 내부의 혁신과 청렴 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서는 전 직원 청렴 교육 의무이수, 청렴 정당회 등 다양한 교육, 홍보, 문화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202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수립된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시행함으로써 「청렴영양」 이미지를 지역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군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통

원활한 물류 수송·북항로 교통체증 해소 기대

목포시가 세라믹산단 진입도로를 22일 개통한다.

그동안 세라믹산단에서 연산119센터를 경유해 산정농공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연장 800m, 왕복2차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사고 위험이 있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시는 이 같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45억원(보상비 5억원, 공사비 40억원)을 투입

해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연장 245m, 폭 20m)를 지난 2020년 12월 착공했고, 올해 8월 완료했다.

진입도로 개통에 따라 산정농공단지과 세라믹산단이 직선으로 연결돼 원활한 물류 수송이 가능해지는 한편 북항의 대단지 아파트(7개 단지, 3,678세대) 등으로 우회 가능한 도로가 확보돼 산단 활성화와 북항로 교통 정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추진계획 보고회

함평군이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함평군은 22일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추진계획 보고회가 이날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전반에 걸쳐 추진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국향대전은 제20대 대통령 선출과 민선 8기 출범을 기념해 바른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현한 근정전과 한복 등 다채로운 국화조형물 5점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생태습지 내에 바람개비 길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마당극, 무형문화재 공연,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함평 드론 라이트쇼 등 볼거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함평=기동취재본부

무안군, 타악쇼 ‘진명X스트리트 Drop the beat’ 공연 개최

26일 오후 7시 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장료 3000원

무안군은 2022년 문화공감방방곡곡 공모사업에 선정된 타악쇼 ‘진명X스트리트 Drop the beat’ 공연을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전통타악, 창작타악, 서양타악, 마칭밴드까지 모든 장르의 타악공연을 즐길 수 있는 타악월드페스티벌 공연이다.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비주얼을 겸비한 타악그룹인 진명은 세계 20개국과 국내에서

1,0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인 실력을 기반으로 악기, 의상제작, 작품개발까지 모두 직접 고민하고 연구했다.

또한 마당이라는 말보다 스트리트라는 말이 익숙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스트리트 문화 속에 우리의 전통연희를 접목시키는 등 타악그룹 진명만의 젊은 감각을 가미해 공연을 보다 멋있고 세련되게 연출했다.

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장

방역, 입장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티켓예매는 승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muang.go.kr/culture) 또는 전화(☎ 061-450-4090)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3,000원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타악쇼는 공모사업을 통해 유지한 작품성 있는 우수공연이다”며 “문화예술품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위한 학술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관광학회 주관...지난 19~20일 이틀간 신안에서 열려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2 농어촌 관광 활성화 학술회의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신안군청에서 열렸다.

신안군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관광학회가 주관했다.

학술대회는 박석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우량 신안군수 환영사, 김혁성 군의장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1부는 신안군 관광자원과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로 황종환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을 좌장으로 ‘신안군 무릉도원 Flopia 조성 방안’을 박석근 회장, ‘신안군의 경관색채와 섬관광 활성화 방안’을 최길타 박사, ‘신안군 섬치유 산업 육성 전략’을 조록환 대구한의대 교수 등 6명의 발제자가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타시군 관광 활성화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로 유상오 안심 LPC 미래전략본부장을 좌장으로 김승철 고려대 교수, 임용택 박사 등 5명의 발제자가 각각 발표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관광학회(회장 박석근)는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제반연구를 위해 1993년에 발족하여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주요 활동은 다양한 학술연구 및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관광 및 농어촌 관광 개발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석근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신안군을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의 전략과 해법을 같이 토론하고 모색했던 뜻깊은 학회였다”면서 “이번 발표 내용을 통해 신안 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광군, 2022 소금박람회서 ‘영광천일염’ 우수성 홍보

영광군은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천일염의 가치를 잇다’라는 주제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22 소금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천일염 좌욕, 지압 등 천일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강관과 인유와 함께 한 소금스토리, 천일염 기업관, 홍보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가위 명절선물관도 함께 진행되어 천일염 현장판매도 진행했다.

영광군에서는 4개 업체가 참여하며 영광 천일염 제품전시,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홍보관 내 e-모빌리티 엑스포와 불갑산 상사화 축제도 함께 홍보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